



5월 11일
화요일

보도자료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정원진	☎	286-6470
----	-------	----	-----	----	-----	---	----------

전남도청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적극 전개

- 농축산식품국 직원 53명, 11일 무안에서 양파 수확 도와 -

전라남도가 모내기과 양파·마늘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5월 12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를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농촌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일손돕기 지원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직원 53명이 무더위 속에서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박모 농가의 양파 수확(0.55ha)를 도왔다.

실제 이날 양파 수확에 도움을 받은 무안군 박모 농가는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해 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촌 일손돕기 중점기간 동안 도청 실·국·원 등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토록 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 동참해줄도록 요청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철은 모내기과 마늘·양파 수확 등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이맘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손돕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일 기준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모내기의 경우 6%, 양파 수확은 16%가 진행되는 등 농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